

프티부르주아 자유주의자가 본 '위험한 현재사'

행복한 책 읽기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펴)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14, 55년의 기록

유시민 지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역사에 관한 논쟁은 인문학의 오랜 화두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화두는 변함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 파동에 이어 얼마 전 문창구 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역사 가운데서도 현대사는 가장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킨다.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와 달리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자 또는 수혜자 등이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한때 정치에 참여했던 이가 떠난 현대사라면 논쟁은 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의 한국현대사 : 1959-2014, 55년의 기록'을 펴냈다. 지난 2013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후 일 년 만에 펴낸 책에서 그는 한국현대사를 주목한다. 직업정치인의 옷을 벗고 작가의 길을 가겠노라 선언한 이후 펴낸 두 번째 저서다.

저자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한다. "프티부르주아 계층의 대구·경북 출신 지식 엘리트로서 젊은 나이에 이름을 알리고 출세를 했지만 결국 정치에 실패한 후 문필업으로 돌아온 자유주의자."

그렇다면 왜 프티부르주아 리버럴의 '위험한 현대사' 읽기인가. 사전적인 '프티부르주아'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생산자"로 봉급생활자나 하급 공무원을 지칭한다. 아마도 저자는 역사교사였던 아버지, 출생지인 경북 경주 등과 같은 배경에 근거해 자신을 규정한 것 같다.

그리고 왜 55년의 이야기인가. 저자가 출생한 1959년부터 올해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다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책은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큰 줄기 삼아 저자의 체험을 전가지로 엮어 구체화했다. 현대사라기보다 '현재사' 내지 '당대사'라 보는 편이 타당할 이유다.

잠시 1959년 대한민국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 인구 2400만, 국내총생산(GDP) 19억 달러, 1인당 GDP 81달러 (유럽 선진국 1000달러, 미국 2000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다.

55년이 흐른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현재 인구 5100만명으로 두 배, 국내총생산(2013년 기준) 약 1조 3000억 달러로 684배, 1인당 GDP 약 2만6000달러로 320 배로 늘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다. '난민촌'이나 다름없던 안보국가 고령화를 걱정해야 하는 민주국가로 변한 것이다. 비록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지구상에서 이만큼 압축성장을 이룬 국가는 없다.

그로 인해 부정적인 폐해도 적지 않았다.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사건,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건, 1993년



1987년 10월 25일 고려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거국중립내각쟁취실천대회'에 참석한 김대중과 김영삼.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양당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야당이 분열되고 국민도 분열되었다. <들베개 제공>

한국 현대사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경쟁과 분투의 기록

서해웨리호 침몰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랜드 화재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0년 천안함 사건,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 참사... 어찌 보면 우리의 현대사는 죽음으로 얼룩진 대형 참사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저자는 나름의 시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린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산업화세력으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민주화 세력으로 분류한다. 우리 현대사를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경쟁과 분투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다.

리더의 조건으로 봤을 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표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을 꼽는다. 따라서 저자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 모두 우리의 과거이며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자세는 온전한 역사인식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 어느 때보다 역사 논쟁이 뜨거운 이 때, 저자의 인식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서로 다른 경험과 세대, 이해관계, 역사관을 가졌다고 해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다.

"기성세대에게 묻는다. 지나온 자신의 삶과 우리의 현대사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그 느낌 그대로 다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현장.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는 한국현대사를 얼룩한 죽음으로 얼룩지게 한 대형참사의 시작이었다.

음 세대에 물려주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독자에게 묻는다. 그대는 부모 세대의 삶과 그들이 만든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며 스스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베개 ·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본이 69년 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다. 집단적 자위권 보유, 아베 신조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것이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우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하면서 침략 전쟁을 부인해왔고 정당화시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들을 비롯하여 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전사한 영령들까지 무작위 합사되어 있다. 아베는 또한 우익교과서의 출판과 채택에 깊이 관여해왔다. 고대역사서 '일본서기'를 왜곡해야 했던 일본. 일제가 왜곡한 우리 역사, 식민사관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주류사학이다.



최근에 읽은 책, 식민사학자들의 역사관을 한 예로 소개한다. 역사학자 김현구의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라는 책. 저자는 백제 멸망 시 백천강 전투에 구원병을 보낸 '일본서기 461년'의 기록을 해석한다. "사이메이 천황이 예순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북큐우슈우로 가서 출병을 준비하다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인 텐지 천황이 상복을 입은 채로(.....) 구원군을 파견하지만 실패하고, 672년 내란으로 인해 붕괴"된 사실에 대해 해석을 내린다. 일본이 왜 그렇게까지 백제를 지원했는지, "베일에" 싸여 있는 일이며 "의심해본다."라고 결론짓는다.

아베의 역사관, 정한론과 집단 자위권

<征韓論>

역사학자는 그저, '의심해'면 안 된다. 학자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연구한 후,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는 또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일본서기 543년'의 기록을 인용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한국의 "이런 무리한 주장이 일본학계가 우리 학계를 갈보려는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단언한다.

이것이 바로 자조적인 식민사관이다. 김현구는 우리 역사서인 '환단고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7세기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진 일본의, 왜곡된 '일본서기'만 믿고 충실하 따를 뿐이다. 오로지 일본인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의심하는 사학자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이라는, 주류 강단사학자들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를 찾아 읽는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들의 결과물이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배경에는 신정한론이 있다. 일본 헌법 9조의 해석개헌, 집단적 자위권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7인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으며 한일관계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아베는 지금 '아름다운 일본'으로 포장한 '강한 일본'을 만들려하고 있다. 이는 일본 우경화의 결과물이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배경에는 신정한론이 있다. 일본 헌법 9조의 해석개헌, 집단적 자위권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7인의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으며 한일관계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에 싸여있다. 현재는 북·일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급박하다. 아베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집단적 자위권 세일즈 외교에 나서면서 '군사협력국'인 우방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 우리나라 일부 지도층의 식민사관은 여전히 뿌리가 깊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한·미·일 공조가 각국의 실리로 변할 '한반도 유사시'에, 북·일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는 '적극적인' 일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새로 나온 책

▲여행자를 위한 고전철학 가이드=고대철학 전문가인 존 개스킨(트리니티 칼리지 터블린 교수)이 쓴 철학안내서로 삶의 여행자인 독자들을 2500여 년 전의 세계로 이끈다. 에게해 일대의 유적을 찾아가 직접 설명을 듣는 것처럼 생생한 현장감이 돋보인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끼친 자연과 공간, 삶과 죽음, 저 너머의 세계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현암사·1만5000원>
▲그린생, 식물을 키우는 손=식물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의 고된과 기쁨, 위안 그리고 이로 인해 풍요롭게 변하는 일상.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정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 영국에서 정원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현재 '정원사의 작업실 오랑주리'의 대표인 주레민이 누구나 손쉽게 빠질 수 있는 가드닝, 정원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가드닝, 식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력적으로 전해준다.



<위고·1만8000원>
▲노의 배신=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는 집단 최면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왜 휴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스웨덴의 뇌과학자인 앤드류 스마트가 일중독자들 모두 찬 세상을 비판하며, 일하지 않는 무위(無爲)의 행동이 왜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시간 낭비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추적한다. 저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뇌의 기저 상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내세워 설명한다. <미디어월·1만3000원>

▲독도에 살다=독도기자로 잘 알려진 전종진의 독도살이, 저자는 독도를 명실상부한 우리 땅이며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독도살이를 시작했다. 저자는 1년간을 독도에서 보내면서 그곳의 자연과 사람, 역사를 선행하게 그려내고,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기쁨과 애환을 솔직담백하게 기술한다. 거기에 더해 독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애정에 대한 바람도 간절하게 담아낸다. <갈라파고스·1만5000원>
▲다시, 사람이다=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인권운동가 고상만이 민주화 투쟁과 인권 유린의 현장에

서 온몸으로 기록한 르포. 치열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참혹한 사연과 더불어 빈민, 노동자, 장애인, 군인, 학생,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뜨거운 언어로 증언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현장에서 만나 그의 심장에 남은 사람들을 호출해 그들의 삶과 투쟁을 기록한다. <책담·1만5000원>
▲소통자본을 구축하라=책은 "PR은 PR이 아니다"는 말로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PR은 '홍보'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하지만 Public Relation의 약자임을 되짚어본다면, 일방적인 '홍보'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자는 PR의 본래 의미처럼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좋게 포장해서 어필하기보다 고객, 투자자, 직원,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진정한 '소통'을 통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투명하고 진실한 소통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한울·1만7000원>

어린이 책

▲아는 만큼 보인다! 영화 속 숨은 재미 찾기=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의 비밀과 숨은 재미를 담아낸 책.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그림의 기법,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비밀과 숨은 의미를 쉽게 알려주고 있다. 52장의 아름다운 영화 스티커를 다양하게 활용해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키즈엠·1만1800원>



▲베드타임 매스1=미국 엄마들의 입소문을 탄 '베드타임 매스'가 우리나라에 서도 정식 출간됐다. 짧은 이야기와 단계

별 퀴즈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수학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동물·음식·탈것·스포츠·직업 이야기를 통해 수학을 온 가족이 즐기는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준다. 익살스러운 일러스트와 함께 꾸렸다. <아이세움·1만2000원>
▲조근조근 조물조물 마사지 그림책=신체 접촉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길러 주는 '마사지'와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이야기'가 결합됐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4가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

는 해, 창문, 구름, 바람, 집, 나무 등을 마사지 동작으로 표현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동화 구연 CD와 마사지 포스터가 포함됐다. <푸른솔주니어·1만2000원>
▲애 5·18 제대로 모르면 안 되나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룬 최초의 논픽션 어린이 책. 1980년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진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 건강하고 끈은 역사관을 가진 어린이로 키워준다. <참돌어린이·1만2000원>

삶의 상처를 희망의 씨앗으로 키우는 지혜

'정호승의 새벽편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정호승 지음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썼는가. 바람이 고요하 그지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짓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쉬울 것이다." <본문 중>
인생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이 나왔다. '정호승의 새벽편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는 삶의 상처마저도 희망의 씨앗으로 키우는 지혜가 담겨 있다.
시인은 그동안 '수선화에게' '선암사'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의 작품에서 빛나는 서정성, 삶에 대한 관조의 시선으로 낯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의 산문집도 기존의 작품처럼 잔잔한 울림과 여운을 준다.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과 새로 쓴 41편을 더해 총 71편을 엮은 산문집에는 일상에서 길어올린 가치와 감성이 묻어났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등 살면서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마음'을 묵상하게 한다.
저자는 "항상 문제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있다"며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나의 인생이 가장 먼저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책에는 저자의 글과 함께 '명상화가' '시' 같은 그림'으로 유명한 박항을 화백의 그림도 수록돼 있다. 선택의 기로, 절벽과도 같은 경계에 앉은 새를 또 다른 자아로 인식하게 하는 그림 또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해냄·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